‘오월광주’ 예술로 승화… 민주주의 꽃핀다

시립발레단, 5·18 아픔·저항·희망의 몸짓 ‘디바인’ 정기공연

80년 5월 격랑의 시간 속으로… ACC, 관객참여형 연극 올려

‘축제도시 광주’ G-페스타, 사계절 확대… 재미와 감동 가득

‘2025 광주방문의 해’와 5·18민주화운동 제45주년을 맞아 광주 곳곳에서 ‘오월광주’의 정체성을 담은 다채로운 전시와 공연이 펼쳐진다.

특히 지난해 가을 감동과 재미, 맛으로 가득 채운 ‘G-페스타 광주’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로 확대되면서 5월의 광주는 볼거리, 즐길거리, 먹을거리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축제로 후끈 달아오를 전망이다.

◇‘오월 광주’ 정체성 담은 문화 행사

광주시립발레단은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오는 16일 오후 7시 30분, 17일 오후 3시 정기공연 ‘DIVINE(디바인)’을 선보인다.

5·18민주화운동의 희생과 정신을 예술로 승화한 작품으로, 치유와 위로 그리고 연대의 메시지를 담은 컨템포러리 발레다. 2023년 ‘무용예술상 작품상’과 ‘한국발레협회상 올해의 작품상’ 수상 등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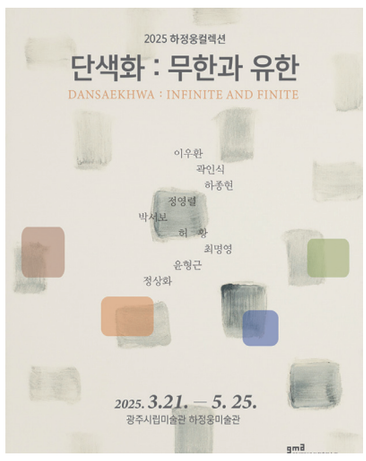
이 작품은 이야기 구조나 특정인물 없이 순수한 움직임과 이미지로 메시지를 전달한다. 무용수들의 절규에 가까운 몸짓, 빛과 어둠이 교차하는 무대 연출을 통해 ‘오월광주’가 품은 아픔과 저항, 희망을 강렬하게 전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은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5·18민주화운동을 배경으로 한 관객참여형 연극 ‘나는 광주에 없었다’를 무대에 올린다.

단순히 관객이 연극을 감상하는 것을 넘어 시민군의 입장에서 직접 1980년 5월 광주의 상황 속으로 들어가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생생한 몰입감과 현장감을 통해 오월 광주의 숨결을 보다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다. 총 러닝타임은 약 2시간으로, 13세 이상 관람 가능하다.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은 오는 10월 19일까지 기록관 3층 기획전시실에서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 ‘소년이 온다’ 특별전을 연다.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소설가 한강의 대표작 ‘소년이 온다’를 중심으로 1980년 5월 광주의 진실과 정신을 문학과 기록으로 재조명한다. ‘소년이 오게 된 이유’와 ‘그가 걸었던 길의 의미’를 관람객 스스로 되새기게 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전한다.



광주시립미술관 하정웅미술관은 오는 25일까지 특별기획전 ‘단색화 : 무한과 유한’전을 연다.

한국의 단색화는 작업 과정의 신체성을 중시하고, 작품에 물질적 세계를 초월한 내면적이고 정신적인 세계를 표현하는 방식을 보인다.

이번 전시에는 한국 단색화의 대표작가 9인(이우환·곽인식·박서보·하종현·정영렬·허황·최명영·윤형근·정상화)의 회화 작품 48점과 아카이브 자료 30여점을 선보인다.

◇‘맛 멋 락’ 담은 G-페스타 확대

광주시는 올해 축제, 공연, 스포츠, 전시, 박람회 등의 행사를 통합 브랜딩한 ‘G-페스타 광주’를 확대, 운영한다.

광주시는 지난해 9월 25일부터 10월 26일까지 12개 기관에서 진행한 17개의 축제, 행사, 마이스를 하나로 묶은 G-페스타를 선보이며 축제도시 광주의 성공 가능성을 확인했다.

올해는 ‘2025 광주방문의 해’를 맞아 가을로 한정하지 않고 연중 축제를 이어갈 계획이다.

▲오월 광주, 민주주의 대축제(5월 17~18일) ▲제60회 광주 시민의 날(5월 24일) ▲무등울림축제(5월 24일) ▲광주국제인문위크(5월 13~15일) ▲무등산 인문축제(5월 31일~6월 1일) ▲2025 광주식품대전(5월 29일~6월 1일) ▲2025 광주 티&카페 쇼(5월 29일~6월 1일) ▲2025 광주주류페스타(5월 29일~6월 1일) 등 5월을 풍성하게 채워줄 축제가 이어진다.

각 행사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광주관광 누리집(tour.gwangju.go.kr) 또는 광주문화예술통합플랫폼(dmgj.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 운영

광주시는 광주의 감성과 문화를 함께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임동 디지털창작소에서는 3D 프린터, UV프린터 등 첨단 장비를 직접 다뤄보는 디지털 장비 교육과 생활용품 제작, 야구 굿즈 만들기 등 체험 프로그램이 상설 운영된다. 참가 신청은 임동 디지털창작소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광주시립수목원에서는 환경·생태 프로그램을 상설 운영 중이다. 프로그램은 현장 접수와 전화 신청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생태 교육과 자연체험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전통음식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광주김치타운에서는 매달 넷째 주 토요일, 계절별 재료를 활용한 김치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전문가의 지도 아래 최소 15명 이상 참여자를 대상으로 운영되며, 체험비는 1만5000원 이내이다. 신청은 광주시 누리집 ‘바로예약’을 통해 할 수 있다.

우치동물원에서는 어린이와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동물생태해설사와 함께하는 동물원 한바퀴’ 프로그램이 운영 중이다. 동물에 대한 흥미와 교육적 요소를 결합한 체험으로 어린이 관람객들에게 특히 인기를 끌고 있다. 시 누리집을 통해 참여 신청할 수 있다.

이승규 신활력추진본부장은 “광주방문의 해와 5·18민주화운동 45주년을 맞아 ‘광주가 왔다, 민주가 온다’는 슬로건처럼 광주 전역이 민주주의와 문화예술이 어우러진 감동의 무대로 거듭나고 있다”며 “광주방문의 해를 계기로 사계절 내내 풍성한 G-페스타를 통해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광주의 매력을 체감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혜정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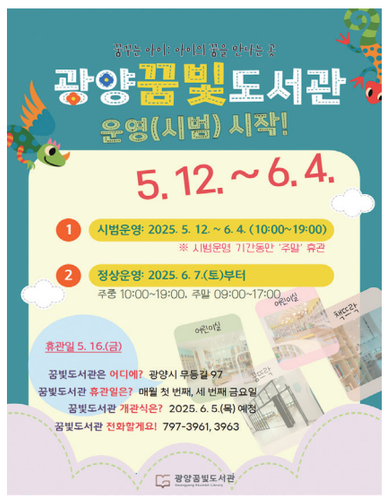
광전매일신문 기사제보·광고문의 TEL 062-525-9775

광양시 두 번째 어린이도서관 ‘광양꿈빛도서관’

12일부터 시범운영 돌입… 6월 7일부터 정식 운영

광양시는 오는 5월 12일부터 ‘광양꿈빛도서관’을 시범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정식 개관에 앞서 시민들이 공간과 주요 서비스를 미리 체험할 수 있도록 시범 운영 기간을 두고, 시설과 운영 시스템 전반을 점검할 계획이다.

광양꿈빛도서관은 마동근린체육공원 인근(무등길 97)에 위치한 연면적 1,440.03㎡, 지상 2층 규모의 어린이 전용 도서관이다. 1층에는 자율 창작공간 ‘꿈뜨락’과 교과 연계 도서 및 학습만화 공간이, 2층에는 다목적 열린 교육 공간 ‘책뜨락’과 어린이 동화 및 그림책 공간이 마련돼 있다. 총 14,172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특화 주제는 ‘창의’와 ‘과학’이다.



특히 1층에 마련된 ‘꿈뜨락’은 광양시 최초의 어린이 자율 창작공간으로, 어린이들은 공간에 준비된 다양한 재료를 활용하여 정해진 규칙 없이 ‘어린이 스스로’ 구현하고 싶은 창작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 어린이 1명당 1일 1회, 50분간 이용할 수 있으며, 어린이가 도서관에 직접 방문해 현장 접수한 후 이용이 가능하다. 이용 관련 문의는 광양꿈빛도서관(☎061-797-3963)으로 하면 된다.

도서관은 시범운영 기간 중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되며, 자료 열람과 공간 이용은 가능하나 도서 대출·반납 등 일부 서비스는 제한된다. 아울러 법정 공휴일과 정기 청소일(매월 첫 번째·세 번째 금요일), 주말은 휴관하며, 이 기간은 자료 정비 및 공간 점검 등 도서관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준비 시간으로 활용된다. 광양꿈빛도서관 개관식은 6월 5일(목) 예정이며, 6월 7일(토)부터는 정식 운영된다.

김미라 광양시 도서관과장은 “광양꿈빛도서관은 단순한 독서 공간을 넘어 ‘꿈꾸는 아이: 아이의 꿈이 만나는 공간’이라는 슬로건 아래, 창의와 배움이 어우러지는 복합 지식문화 공간으로 설계됐다”며 “경험과 배움이 어우러지는 지식 문화 공간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니 도서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찾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양/신선호 기자

광주시, 지역서점 20여곳 프로그램 운영 지원

23일까지 인문·독서모임 등 공모… 생활문화시설 역할 확대 기대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불고 있는 ‘책 읽기 열풍’을 이어가고자 ‘2025년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광주시는 오는 23일까지 공모를 통해 지역서점 20여곳을 선정, 인문프로그램·독서모임 등 지역서점 특장점을 살린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한다.

공모는 ‘인문프로그램 기획 서점’과 ‘독서모임 운영 서점’ 유형으로 나눠 진행한다. 서점의 기획 역량과 운영 방식에 따라 유형을 선택해 공모에 참여하면 된다.

‘인문프로그램 기획 서점’은 서점의 특장점을 살려 책을 중심으로 한 인문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방식이다. 운영 횟수는 3회차 이상으로 강연, 북토크, 영화·음악과 같은 타 장르와 협업 등 다양한 형태로 기획 가능하다.

선정된 서점은 신청 내용과 진행 횟수 등에 따라 건당 3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독서모임 운영 서점’은 서점 대표가 직접 5회차 이상의 독서 모임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방식이다. 지역 작가 등 독서 모임의 리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인물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지원금은 서점당 150만원이다. 사업 참여 서점을 대상으로 컨설팅과 교육을 통해 프로그램 운영 역량 강화도 지원한다. 또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홍보 프로그램도 추진할 예정이다.

공모 신청은 오는 23일 오후 6시까지다. 이메일(gcf_art@naver.com)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김명수 기자